

간호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과 무기력 행동*

윤 현 경**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처럼 학업성취를 중요시하는 대학 분위기에 서 학생들은 높은 성취목표를 잡게 되고 따라서 많은 실패 경험을 갖게 되며 결국 학습된 무기력을 형성하게 되는 환경에 쉽게 노출되기 쉽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타 학과의 학생들에 비해 엄격한 교육과정, 과중한 학습량, 엄중한 행동 규범, 간호사 국가시험에 대한 중압감, 다양한 임상상황의 실습, 대상자에 대한 책임감(Jung & Kwon, 2013; Lee & Park, 2013)으로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이 변화시킬 수 없다고 인지하는 무기력을 경험하게 된다(Hong & Park, 2014). 이러한 무기력은 불안, 우울, 절망, 위축, 수면장애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Choi & Cha, 2014; Lee, 2010; Son, Choi, & Song, 2010) 간호교육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부정적인 결과나 고통스러운 자극을 회피하기 위해 일련의 행동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제에 거듭 실패함으로써, 더 이상 부정적인 상황을 통제하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을 말하며(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수동성과 학습의 결여, 공격성의 감소, 열등, 문제해결의 효율성 저하 및 기대와 행동을 쉽게 포기하는 인내성의 부족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어졌다(Kim, 2012; Pina, Luana, Caterina, & Sevastiano, 2015). 또한 학습된 무기력이 증가하면 자기 효능감과 학업성취도가 저하되어 학교생활의 적응이 어려워지며(Choi & Park, 2013; Lee, 2010), 자기평가 절하, 불안, 좌절감, 우울증에 시달리고(Kang & Kim, 2004; Nurmi, Aunola, Salmela-Aro, & Lindroos, 2003),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Jeon & Lim, 2010),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된다(Gencoz, Vatan, Walker, & Lester, 2008; Lee & Bong, 2013)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어 간호학생들의 학습된 무기력 정도와 그와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Jun과 Park (2010)은 학습된 무기력과 수업과정에서 느끼는 정서 등의 심리적인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무기력한 수업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 본 연구는 호원대학교의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yhk@howon.ac.kr)

• Received: 15 June 2015 • Revised: 25 June 2015 • Accepted: 4 August 2015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Yoon, Heun Keung

Department of Nursing, Howon University

64 Howondae 3gil, Impi, Gunsan-si, Jeollabuk-do, 573-718, Korea

Tel: 82-63-450-7766 Fax: 82-63-450-7769 E-mail: yhk@howon.ac.kr

하였다. 무기력 행동은 수업의 동기적 측면에서 수업 과정과 결과적 측면에까지 교수자에게 관찰되어지는 학생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말한다(Sligman, 1975). 기존연구에서 무기력 발생 원인을 지나친 실패경험으로 인한 자기 효율성 저하, 자기통제성 결여, 정서적 부적응, 신체적 및 생리적 결함,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요인으로 정의하였는데 특히 외적요인 중 학교요인으로 학습내용 및 교수방법에 대한 이해곤란도와 학습내용, 학습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정도, 학급분위기, 교사와 친구들 간의 인간관계 및 상호작용 등이 무기력 발생요인으로 보고 되어졌으나(Bae, 2008; Jun & Park, 2010), 과중한 학습량과 교육과정 중 학업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호소(Choi & Park, 2013)하는 간호대학생에 대한 무기력 행동의 원인을 확인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또한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실패경험은 학습된 무기력을 갖게 하고, 이는 학습자의 동기와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Pina et al., 2015; Schleider, Velez, Krause, & Gillham, 2014)가 있어 왔기 때문에 간호대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무기력 행동을 간과하거나 닦할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나타나 고착화되기까지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해 교수자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국외연구로는 초기 청소년과 만성질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내연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 있어왔고, 최근들어 대학생(Choi & Cha, 2014; Jun & Park, 2010; Kim, 2014)과 여대생(Lee, 2012)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고, 간호대학생의 무기력과 관련된 연구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무기력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Hong & Park, 2014), 무기력과 간호이미지 관계에서 임상실습만족도의 매개효과(Lee, 2010)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이며, 이 선행연구들은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등 일부 변인에만 중점을 두고 이들 간의 관계 또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논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간호학의 교육과정 중에서 포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학습된 무기력과 무기력 행동의 정도와 그 특성을 확인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

구는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학습된 무기력과 무기력 행동의 정도를 파악하여 학습된 무기력과 무기력 행동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및 무기력 행동의 정도와 관계를 규명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및 무기력 행동의 정도를 확인한다.
-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된 무기력 및 무기력 행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간호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및 무기력 행동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및 무기력 행동의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 H대학과 G시 J대학 두 곳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3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G*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2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를 선정하였을 때 차이 분석에 적합한 표본 수는 305명이 산출되므로 (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 본 연구에서의 332부의 설문지는 자료 분석에 적합하다.

3. 연구 도구

1)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은 반복적인 실패경험에 의하여 유사

한 상황에서 실패할 것이라 기대감을 갖는 것으로 Shin (1990)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학습된 무기력 진단척도 4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측정도구는 자신감 결여(17문항), 우울-부정적 인지(10문항), 수동성(6문항), 통제력 결여(4문항), 지속성 결여(3문항), 과시욕 결여(3문항), 책임감 결여(2문항) 등 총 7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각 문항의 총점을 평균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으며(점수 가능범위 =1~5점),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된 무기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hin (1990)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7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96이었다.

2) 무기력 행동

무기력 행동은 Jun과 Park (2010)이 개발한 12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무기력 행동에 대한 측정 도구는 학생이 일반적으로 수업에서 관찰되어지고 교수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무기력 행동유형을 학습상황 전, 학습상황과정, 학습상황 후로 나누어 유목화하여 12문항으로 측정하는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며, 하부 영역은 수업동기(2문항), 수업과정(7문항), 수업결과(3문항) 등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기력 행동에 대한 측정도구의 점수는 각 문항의 총점을 평균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으며(점수 가능범위 =1~5점),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무기력 행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un과 Park (2010)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73이었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일이었고, 해당 학교의 간호학과장과 각 학년 과대표에게 동의를 구하고 간호학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참여의사를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었으며,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자료수집은 수업을 마친 후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구조화된 설문

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으며, 설문지는 자료 분석에 부적합한 18부를 제외한 332부만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Window version 21.0을 이용하여 two tailed, significance p (.05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 변수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기력 행동과 학습된 무기력 및 하부 영역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학습된 무기력과 무기력 행동 및 하부 영역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남학생 8.4%, 여학생 91.6%였으며, 학년은 1학년 33.3%로 가장 많았고, 3학년이 18.4%로 가장 적었다. 가족 경제수준은 중류층이 59.3%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4.5%가 하층이라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59.3%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집에서 통학을 하는 학생이 22.6%, 하숙 및 자취를 하는 학생은 17.5% 이었다. 또한 교우관계는 49.4%가 '좋은 편이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3.3%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학업 성적은 평점 3.0 이상~4.0 이하가 74.4%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1.5%가 평점 2.0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Table 1).

2. 연구 대상자의 학습된 무기력과 무기력 행동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의 전체 평균점수는 1~5점 범위에서 2.46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자신감 결여가 1~5점 범위에서 2.41점, 우울 및 부정적 인지가 2.69점이었으며, 수동성이 2.41점, 통제력 결여가 2.58점, 과시욕 결여가 2.37점이었고, 책임감 결여가 2.39점이었다(Table 2). 학

Table 1.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332)

Characteristics		n(%)
Sex	M	28(8.4)
	F	304(91.6)
Grade	Freshman	111(33.4)
	Sophomore	84(25.3)
	Junior	61(18.4)
	Senior	76(22.9)
Perceived economic status	Good	52(15.7)
	Fair	197(59.3)
	Poor	68(20.5)
	Bad	15(4.5)
Current residence	Dormitory	197(59.3)
	Parent's house	75(22.6)
	Relative house	2(0.6)
	Studio or flat	58(17.5)
Degree of peer relationship	Good	164(49.4)
	Moderate	157(47.3)
	Difficult	11(3.3)
Accumulated last semester grade	< 2.0	5(1.6)
	2.0 ~ <3.0	40(12.0)
	3.0 ~ <4.0	247(74.4)
	> 4.0	40(12.0)

Table 2. Degree of Learned Helplessness and Helplessness Behavior

(N=332)

Variables	M±SD
Learned helplessness	2.46±0.60
Lack of self-confidence	2.41±0.72
Depression-negative cognition	2.69±0.79
Passivity	2.41±0.81
Lack of self-control	2.58±0.64
Lack of durability	2.49±0.74
Lack of ostentation	2.37±0.70
Lack of responsibility	2.39±0.85
Helplessness behavior	2.52±0.45
Class motivation	2.56±0.66
Class process	2.66±0.27
Class result	2.20±0.72

습된 무기력의 하부영역에서 평균점수보다 높은 문항은 자신감 결여에서는 '자신을 원망할 때가 많다가 2.88점,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자주 있다'가 2.56점, '생활은 행복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다' 2.56점, '자신이 불쌍하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가 2.68점, '가끔 나 자신이 싫어진다' 2.66점,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 2.48점, '후회하는 일을 자주 한다' 2.82점으로 나타났고, 우울 및 부정적 인지에서는 '나

도 모르는 사이에 멍하니 있기를 잘 한다' 3.28점, '슬픈 일을 더 많이 생각한다' 2.50점, '풀이 죽는 일이 종종 있다' 2.84점, '공연히 우울해질 때가 있다' 2.97점,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대개 고독을 느낀다' 2.60점, '우울할 때가 많다' 2.61점, '사소한 일에도 슬프고 쓸쓸해진다' 2.62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동성에서는 '내향적이어서 일에 소극적이다' 2.53점으로 나타났고, 통제력 결여에서는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는

편이다' 2.61점, '무엇이나 열중하고 끝까지 계속하지 못한다' 2.60점, '의지가 약하고 인내력이 없다' 2.85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성 결여에서는 '한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한다' 2.52점, '일이나 공부를 하기 싫어서 자주 쉰다' 2.93점, 과시욕 결여에서는 '장래에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가 2.61점으로 학습된 무기력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기력 행동의 전체 평균점수는 1~5점 범위에서 2.52점이었으며, 하위 영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수업동기가 1~5점 범위에서 2.56점, 수업과정이 2.66점이었으며, 수업결과가 2.20점이었다(Table 2). 무기력 행동의 전체 평균점수보다 높은 문항은 '나는 이 수업에 무엇인가 배울 것을 기대하지 않으며 수업에 임하지 못하는 편이다'가 2.61점, '나는 수업시간에 뒤쪽에 앉는다'가 2.60점, '나는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한다'가 2.59점, '교과서나 참고문헌을 수업전후로 읽지 않는다'가 3.59점, '교수님의 질문에 침묵한다'가 2.97점, '수업 중 토론에 참여한다'가 3.04점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된 무기력 및 하위 영역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은 성별, 학년, 가족 경제수준, 현재 거주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우관계($F=13.45, p<.001$), 학업 성적($F=3.67, p=.013$)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 결과, 교우관계의 경우 '어려움을 느낀다' 그룹이 2.94점으로 '좋은 편이다' 그룹 2.34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학습된 무기력의 하위 영역 중 자신감 결여 영역은 교우관계($F=8.05, p<.001$), 학업성적($F=3.56, p=.01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그룹이 2.92점으로 '좋은 편이다' 그룹의 2.27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우울 및 부정적 인지 영역에서는 가족 경제수준($F=3.20, p=.024$), 교우관계($F=6.59, p=.0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가족 경제수준 '하' 그룹이 3.30점으로 '중상' 그룹 2.65점, '중' 그룹 2.66점, '하' 그룹 2.67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그룹이 3.13점으로 '좋은 편이다' 그룹 2.54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수동성 영역은 교우관계($F=30.43,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사후검정 결과 교우관계가 '어려움을 느낀다' 그룹이 3.03점으로 '좋은 편이다' 그룹 2.10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제력 결여 영역은 교우관계($F=6.95, p=.001$), 학업성적($F=4.34,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교우관계는 '어려움을 느낀다' 그룹이 2.89점으로 '좋은 편이다' 그룹의 2.48점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이 '평점 2.0 이하' 그룹이 3.15점으로 '평점 4.0 이상' 그룹의 2.35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지속성 결여 영역에서는 교우관계($F=13.09,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검정 결과 교우관계에서는 '어려움을 느낀다' 그룹이 2.94점으로 '좋은 편이다' 그룹의 2.29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과시욕 결여 영역에서는 교우관계($F=8.27, p<.001$), 학업성적($F=5.6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정 결과 교우관계에서는 '어려움을 느낀다' 그룹이 2.76점으로 '좋은 편이다' 그룹의 2.22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학업성적이 '평점 2.0 이하' 그룹이 2.93점으로 '평점 4.0 이상' 그룹의 2.20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책임감 결여 영역은 학업성적($F=2.84, p=.03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able 3).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기력 행동 및 하위 영역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무기력 행동은 성별, 가족 경제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년($F=6.49, p<.001$), 현재 거주지($F=3.26, p=.022$), 교우관계($F=4.81, p=.009$), 학업 성적($F=5.34,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사후검정 결과, 학년의 경우 '4학년' 그룹이 2.68점으로 '2학년' 그룹 2.39점, '3학년' 그룹 2.48점 보다, 학업 성적의 경우 '하' 그룹이 2.83점으로 '평점 4.0 이상' 그룹의 2.3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3. Differences in Learned Helpless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 332)

Characteristics	Learned helplessness		Lack of self-confidence		Depression-negativ e cognition		Passivity		Lack of self-control		Lack of durability		Lack of ostentation		Lack of responsibility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Sex																
M	2.52±0.64	0.36 (.807)	2.31±0.75	0.69 (.997)	2.71±0.89	1.85 (.902)	2.63±0.94	1.10 (.140)	2.52±0.73	2.16 (.578)	2.60±0.75	0.75 (.433)	2.46±0.66	0.46 (.458)	2.27±0.76	0.14 (.423)
F	2.49±0.60		2.40±0.41		2.69±0.78		2.39±0.80		2.59±0.63		2.48±0.74		2.36±0.70		2.40±0.86	
Grade																
Freshman	2.48±0.60		2.33±0.66		2.68±0.79		2.42±0.80		2.69±0.68		2.55±0.74		2.30±0.73		2.36±0.87	
Sophomore	2.49±0.64		2.42±0.74		2.72±0.80		2.37±0.82		2.53±0.58		2.44±0.71		2.38±0.71		2.33±0.82	
Junior	2.43±0.52		2.35±0.67		2.57±0.73		2.30±0.80		2.51±0.60		2.46±0.82		2.43±0.60		2.43±0.84	
Senior	2.59±0.64		2.54±0.81		2.77±0.82		2.54±0.82		2.53±0.65		2.47±0.73		2.42±0.72		2.47±0.87	
Good ^a	2.45±0.64		2.33±0.78		2.65±0.88		2.40±0.88		2.51±0.74		2.39±0.79		2.31±0.75		2.48±0.89	
Fair ^b	2.48±0.58		2.40±0.69		2.66±0.75	3.20 (.024)	2.38±0.80	0.86 (.460)	2.59±0.60	0.29 (.835)	2.48±0.72	0.94 (.420)	2.35±0.66	1.13 (.338)	2.31±0.83	1.24 (.262)
Poor ^c	2.51±0.64		2.39±0.72		2.67±0.82	a,b,c,d	2.45±0.79		2.62±0.65		2.55±0.79		2.40±0.75		2.52±0.85	
Bad ^d	2.87±0.58		2.82±0.77		3.30±0.68		2.72±0.78		2.56±0.70		2.71±0.64		2.67±0.81		2.50±1.02	
Dormitory	2.48±0.60		2.37±0.69		2.69±0.80		2.40±0.82		2.57±0.65		2.48±0.76		2.33±0.70		2.38±0.87	
Parent's house	2.51±0.62		2.40±0.75		2.64±0.77		2.51±0.77		2.67±0.58		2.52±0.62		2.49±0.71		2.38±0.84	
Relative house	2.59±0.49		2.74±0.54		2.85±0.64		2.33±0.24		2.25±0.71		2.50±0.71		2.00±0.94		2.25±1.06	
Studio or flat	2.54±0.62		2.52±0.80		2.73±0.79		2.36±0.85		2.50±0.65		2.47±0.82		2.38±0.66		2.44±0.83	
Degree of peer relationship																
Good ^a	2.34±0.59		2.27±0.71		2.54±0.78		2.10±0.74		2.48±0.63		2.29±0.69		2.22±0.69		2.34±0.88	
Moderate ^b	2.63±0.58		2.52±0.70		2.81±0.79		2.70±0.74		2.69±0.59		2.66±0.72		2.50±0.68		2.46±0.82	
Difficult ^c	2.94±0.50		2.92±0.54		3.13±0.45		3.03±0.89		2.89±0.96		2.94±0.95		2.76±0.54		2.32±0.96	
< 2.0 ^a	2.62±0.36		2.49±0.51		2.42±0.59		2.47±0.68		3.15±0.22		2.80±0.51		2.93±0.28		2.80±0.45	
Accumulated last semester grade																
2.0 ~ (3.0 ^b)	2.77±0.64		2.74±0.78		2.99±0.83		2.63±0.92		2.76±0.63		2.64±0.66		2.72±0.61		2.59±0.93	
3.0 ~ (4.0 ^c)	2.47±0.58		2.37±0.70		2.65±0.76		2.38±0.80		2.58±0.61		2.49±0.73		2.33±0.68		2.40±0.84	
> 4.0 ^d	2.37±0.66		2.29±0.73		2.66±0.90		2.39±0.76		2.35±0.73		2.30±0.85		2.20±0.78		2.09±0.84	

a, b, c, d, e = Post-Hoc test

Table 4. Differences in Helplessness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32)

Characteristics	Helplessness behavior		Class motivation		Class process		Class result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Sex	M	2.72±0.46	2.61±0.74	0.40	2.66±0.55	0.31	2.40±0.17	0.99	
	F	2.65±0.39	(.455)	2.55±0.66	(.687)	2.66±0.49	(.975)	2.18±0.66	(.330)
Grade	Freshman ^a	2.66±0.45	6.49	2.57±0.67	1.15	2.71±0.49	9.01	2.19±0.66	1.61
	Sophomore ^b	2.39±0.46	($< .001$)	2.54±0.69	(.328)	2.47±0.46	($< .001$)	2.08±0.68	(.187)
	Junior ^c	2.48±0.40	b,c\<d	2.44±0.65		2.59±0.46	b\<a\<d	2.25±0.87	
	Senior ^d	2.68±0.43		2.65±0.60		2.84±0.48		2.32±0.68	
Perceived economic status	Good ^e	2.48±0.45	1.44	2.53±0.69	0.54	2.58±0.48	3.48	2.21±0.72	0.93
	Fail ^b	2.64±0.45	(.232)	2.57±0.64	(.658)	2.66±0.49	(.016)	2.24±0.74	(.427)
	Poor ^c	2.48±0.45		2.51±0.70		2.63±0.50	a,b,c\<d	2.13±0.64	
	Bad ^d	2.22±0.44		2.73±0.78		3.03±0.47		1.98±0.71	
Current residence	Dormitory	2.47±0.46	3.26	2.54±0.69	0.31	2.61±0.50	2.21	2.10±0.67	3.46
	Parent's house	2.58±0.39	(.022)	2.57±0.59	(.821)	2.69±0.40	(.875)	2.33±0.82	(.017)
	Relative house	2.25±0.47		2.50±0.71		2.36±0.10		1.83±1.18	
	Studio or flat	2.66±0.44		2.63±0.68		2.79±0.55		2.37±0.68	
Degree of peer relationship	Good ^a	2.46±0.44	4.81	2.45±0.66	5.19	2.60±0.48	2.72	2.13±0.77	2.13
	Moderate ^b	2.59±0.43	(.009)	2.65±0.63	(.006)	2.72±0.50	(.068)	2.25±0.63	(.120)
	Difficult ^c	2.73±0.65		2.91±0.94	a\<c	2.79±0.54		2.48±0.91	
Accumulated last semester grade	< 2.0 ^a	2.83±0.20	5.34	2.50±0.50	1.20	3.00±0.23	5.77	2.66±0.24	1.97
	2.0 ~ 3.0 ^b	2.65±0.42	(.001)	2.60±0.71	(.310)	2.81±0.49	(.001)	2.28±0.61	(.119)
	3.0 ~ 4.0 ^c	2.54±0.44	d\<a	2.58±0.65		2.67±0.47	d\<a	2.21±0.68	
> 4.0 ^d	2.30±0.49		2.38±0.73		2.41±0.57		2.00±1.00		

* a, b, c, d, e = Post-Hoc test

Table 5. Correlation between Learned Helplessness and Helplessness Behavior (N=332)

	Helplessness behavior r(p)	Class motivation r(p)	Class process r(p)	Class result r(p)
Learned helplessness	.385(<.001)	.322(<.001)	.327(<.001)	.240(<.001)
Lack of self-confidence	.322(<.001)	.282(<.001)	.265(<.001)	.207(<.001)
Depression-negative cognition	.264(<.001)	.246(<.001)	.243(<.001)	.119(.030)
Passivity	.259(<.001)	.222(<.001)	.236(<.001)	.103(.015)
Lack of self-control	.469(<.001)	.316(<.001)	.352(<.001)	.414(<.001)
Lack of durability	.324(<.001)	.246(<.001)	.299(<.001)	.179(.001)
Lack of ostentation	.361(<.001)	.255(<.001)	.279(<.001)	.297(<.001)
Lack of responsibility	.234(<.001)	.189(<.001)	.197(<.001)	.156(.004)

무기력 행동의 하위 영역 중 수업 동기 영역에서는 교우관계($F=5.19, p=.00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 검정결과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그룹이 2.84점으로 '좋은 편이다'로 응답한 그룹의 2.6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수업과정 영역에서는 학년($F=9.01, p<.001$), 가족 경제수준($F=3.48, p=.016$), 학업 성적($F=5.7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학년은 '4학년' 그룹이 2.84점으로 '1학년' 그룹 2.71점, '2학년' 그룹 2.47점보다, 가족 경제수준은 '하' 그룹이 3.03점으로 '중상' 그룹 2.58점, '중' 그룹 2.66점, '중하' 그룹 2.63점보다, 학업 성적은 '평점 4.0 이하' 그룹이 3.00점으로 '평점 2.0 이하 그룹' 2.41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수업결과는 현재 거주지($F=3.46, p=.01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5. 학습된 무기력과 무기력 행동 및 하부영역과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학습된 무기력과 무기력 행동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385, p<.001$). 또한 학습된 무기력은 무기력 행동의 하부 영역인 수업 동기($r=.322, p<.001$), 수업과정($r=.327, p<.001$), 수업결과($r=.240, p<.001$)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무기력 행동은 학습된 무기력의 하부영역인 자신감 결여($r=.322, p<.001$), 우울 및 부정적 인지($r=.264, p<.001$), 수동성($r=.259, p<.001$), 통제력 결여

($r=.469, p<.001$), 지속성 결여($r=.324, p<.001$), 과시욕 결여($r=.361, p<.001$), 책임감 결여($r=.234, p<.001$)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5).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학습된 무기력과 무기력 행동의 정도와 특성을 파악하여 학습된 무기력과 무기력 행동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학습된 무기력은 점수 가능범위 1~5 점 중 2.46점으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2014)의 연구에서 2.47점,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Lee (2012)의 연구에서는 2.36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지방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과 Park (2010)의 연구에서는 3.58점으로 본 연구의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연구는 아니지만 무기력을 측정된 Jun과 Park (2010)의 연구에서는 2.23점으로 선행연구들의 학습된 무기력의 점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 간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 보다 낮은 무기력 점수를 보였으나, 무기력 유발요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현상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불어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된 무기력을 확인하는 반복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학습된 무기력의 하위영역 중 자신감 결여, 통제력 결여, 과시욕 결여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교우관계에 대

한 어려움을 느낄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및 부정적 인지와 수동성, 지속성 결여 영역에서는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수록, 책임감 결여 영역에서는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학습된 무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심리적인 무기력을 양산하는 가장 큰 원인이 교우관계와 학업성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다른 전공의 학생들과는 달리, 임상실습과 병행하는 수업에 따른 부담과 더불어 국가고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한 일련의 과정 등의 다양한 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교우관계를 다지는 시간보다는 시험, 과제, 학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여유롭게 교우들과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과 성적으로 취업의 길이 달라지므로 경쟁을 해야 하는 사회적 현상(Hwangri, 2013)과도 관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Lee와 Park (2014)의 연구에서 교우관계에 만족할수록 통합성이 높고 학업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팀별과제나 팀별 학습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의 학습과정에서 팀원 간의 협동심이나 배려심이 중요하다고 느끼기는 하나 어렵고 힘들어 하는 Choi & Park (2013)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우관계를 다질 수 있는 학과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성적관리와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추후 개선사항을 재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전문상담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스트레스 중 학업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호소하고, 우울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Son, Choi, & Song, 2010), 여대생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은 학업 문제이며(Kim, Jung, & Park, 2008), 학업성적은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기력 등을 가져옴과 동시에 우울감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Woo, 2005)와 유사한 결과라 보여진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 관련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의 마련이 필요하고, 성적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인 부적응을 일으킬 위험이 높으므로 대응방안 마련으로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

는 교육과정의 재편성과 학업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질적 교육의 제공과 학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법 및 교과 외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들의 무기력 행동은 점수 가능범위 1~5 점 중 평균점수 2.52점으로, 중간정도의 무기력 행동을 보였고, 비록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Bae (2008)의 연구에서 2.78점, Jun과 Park (2010)의 연구에서 3.79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간호대학생의 무기력을 측정된 Hong과 Park (2014) 연구에서는 2.23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의 특성이 고등학생과 지방대학생, 간호대학생으로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동일한 도구 및 수업전반에 나타나는 무기력 행동을 측정된 연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므로 추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기력 행동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그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무기력 행동은 학년이 높을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거주형태와 교우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무기력 행동을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따라 확인한 연구가 없어 정확한 비교나 분석은 어려우나 간호대학생의 특성상 학년이 높을수록 성적, 국가고시, 취업 등에 대한 중압감이 높게 나타나고, 가족이 함께 있기 보다는 또래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에 거주(Choi & Park, 2013)하여 학업과 성적 및 교우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결과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Jun & Park, 2010)와 상이한 결과를 보여 추후 어떠한 교육 및 환경적 특성이 무기력 행동을 야기시키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리라 본다.

무기력 행동의 하위영역 중 수업동기는 교우관계가 어려울수록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 결과는 선행연구(Kim, 2014; Lee, Choi, Shin, & Jang, 2010)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교우관계는 수업참여에 대한 원동력이고(Kim, 2014) 특히 간호교육에 있어서 동기 부여는 학업성취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Karabulut, Aktas, & Alemdar, 2015)이며, 학교생활 적응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교우관계 개선을 위

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수업과정은 4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학과 특성상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업의 양이 축적되어 가중되어 어려움을 보이며, 실습과 수업의 병행으로 지방간호대학생은 원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기존연구에서 무기력 행동의 경우는 사회적 인식과 객체를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학교 만족도와 학교 적응도가 의미있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므로(Jun & Park, 2010), 무기력 행동 개선을 위한 학과 및 학교 차원의 노력과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학습된 무기력과 무기력 행동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Gencoz 등(2008)의 연구에서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심리적 변인인 학습된 무기력감이 행동변인인 무기력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기력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간호학생들의 심리적 통제력을 회복시키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신의 감정을 동료 학생들과 학과 교수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며,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등 학습된 무기력을 예방할 수 있는 중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학습된 무기력과 무기력 행동의 정도와 특성을 파악하여 학습된 무기력과 무기력 행동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된 무기력에는 교우관계와 학업성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무기력 행동은 학년, 학업성취, 현재 거주지 및 교우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 변수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자료 수집 시 일부 4년제 지방대학을 선택하

고 대상자를 편의 표집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무기력 행동의 도구가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어지지 않아 추후 연구를 통해 도구 검토와 정련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변인인 학습된 무기력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학과와 교수의 지속적인 관심과 상담의 필요 및 교우관계 개선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하 그룹 성적이 학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며, 학습된 무기력과 무기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Abramson, L. Y., Seligman, M. E., & Teasdale, J. D.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49 - 74. <http://dx.doi.org/10.1037//0021-843x.87.1.49>
- Bae, J. H. (2008).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hool learning history, and motivational variables on learned helpless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angwon.
- Cho, H. O. (2011). *The influence of learned helplessnes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 The mediating effects of isolation and empathy*.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Choi, J. & Cha, B. K. (2014). Factors affecting learned helplessness in undergraduates. *Korean Society of Public Health Nursing, 28*(3), 509-521. <http://dx.doi.org/10.5932/JKPHN.2014.28.3.509>
- Choi, J. H. & Park, M. J. (2013).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method to evaluate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associate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7), 339-349.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7.339>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Power 3 : A flexible s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Retrieved June, 12, 2015, from <http://www.coe.fsu.edu/content/download/51987/428157/file/Faul2007.pdf>
- Gencoz, F., Vatan, S., Walker, R., & Lester, D. (2008). A brief research note: helplessness, hopelessness, and haplessness as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Death and Dying*, 67, 315-318. <http://dx.doi.org/10.2190/OM.57.3.f>
- Hong, S. S. & Park, M. J. (2014).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helplessness on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2), 369-377.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2.369>
- Hwangri, R. (2013).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ng*, 26(2), 215-226.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2.215>
- Jung, H. Y. & Kwon, J. O. (2013). A study on the stress, self-esteem, and mental-health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7(4), 191-204. <http://dx.doi.org/10.12811/kshsm.2013.7.4.191>
- Jeon, M. A. & Lim, S. Y. (2010). A relationship between learned helplessness and stress coping strategy i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Industrial Education Association*, 35(1), 1-19. <http://dx.doi.org/10.5430/jnep.v3n1p152>
- Jun, K. A. & Park, J. H. (2010). A study on effective variables associated with provincial university students' learned helplessness and helplessness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7(1), 57-81.
- Kang, H. W. & Kim, Y. H.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ress, result and learned helplessnes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5(4), 883-897.
- Karabulut, N., Aktas, Y. Y., & Alemdar, D. K. (2015). The relationship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to nursing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Kontakt*, 17(1), 9-15. <http://dx.doi.org/10.1016/j.kontakt.2015.01.003>
- Kim, N. Y., Jung, D. Y., & Park, H. J. (2008). A study on perceived stress and dietary habits of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 181-188.
- Kim, J. H. (2012).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d helplessness and job commi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tress & the moderating effe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6(2), 139-160.
- Kim, J. Y. (2014).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interpersonal problems on learned helplessness-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go resili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Lee, M. J. & Bong, M. M. (2013). Learned helplessness in school during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1(1), 77-105.
- Lee, K. H. (2010). Mediation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powerlessness and nursing imag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6(1), 26-34.
- Lee, K. Y., Choi, S. Y., Shin, S. C., & Jang, S. H. (2010).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learning motivation on school adjustment of

- teenager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9(1). 251-270.
- Lee, M. H. & Park, M. S. (2014). Sense of coherence and academic stress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4), 863-872.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2.863>
- Lee, E. K. & Park, A. A. (2013) Ego-resilience and th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2), 293-303. <http://dx.doi.org/10.5932/JKPHN.2013.27.2.293>
- Lee, E. J.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Learned Helplessnes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with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Nurmi, J., Aunola, K., Salmela-Aro, K., & Lindroos, M. (2003). The role of success expectation and task-avoidance in academic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Three studies on antecedents, consequences and correlate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8(1), 59-90. [http://dx.doi.org/10.1016/S0361-476X\(02\)00014-0](http://dx.doi.org/10.1016/S0361-476X(02)00014-0)
- Pina, F., Luana, S., Caterina, B., & Sebastiano, C. (2015).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learned helplessness : the role of school self-efficacy. *School Mental Health*, <http://dx.doi.org/10.1007/s12310-015-9151-2>
- Schleider, J. L., Velez, C. E., Krause, E. D., & Gillham, J. (2014). Perceived psychological control anxiety early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attributional sty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8(1), 71-81. <http://dx.doi.org/10.1007/s10608-013-9573-9>
- S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San Francisco: W. H. Freeman.
- Shin, G. M (1990). On the development of a learned helplessness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 Son, Y. J., Choi, E. Y., & Song, Y. A.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Society Medicine*, 18(4), 345-352.
- Woo, J. H. (2005). A study on the phenomenon of learned helplessness and depress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9, 15-43.

A Study on Nursing students' Learned helplessness and Helplessness behavior

Yoon, Heun-Ke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owon University)

Purpose: The current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study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degree and properties of learned helplessness and lethargic behaviors in students of the college of nursing. **Methods:** A total of 332 nursing students were enrolled and responded for data collection from October 1st through October 20th, 2013. Frequency, percentil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The mean score of learned helplessness in nursing students was 2.46,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relation to friendship ($F=13.45$, $p<.001$) and academic achievement ($F=3.67$, $p<.013$). On the other hand, the average score of lethargic behaviors was 2.52 and it showed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grade ($F=6.49$, $p<.001$), current residence ($F=3.26$, $p<.022$), friendship ($F=4.81$, $p<.009$), and academic achievement ($F=5.34$, $p<.001$), indicating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se variables. **Conclusion:** Based on the study results herein, effective counseling, as well as continuous attention to students by school, and professors are needed in order to alleviate sense of learned helplessness, which is a psychological variables often shown in nursing patients. Further, additional studies with regards to various variables impacting the nursing student might be warranted.

Key words : Nursing student, Learned helplessness, Helplessness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Howon University in 2015.*